

사람이 태어날 때와 같은 조용한 신성함

토시코 카마다(일본인, 아바타 마스터)

취산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주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평안한 것은 저에겐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와 같은 어떠한 조용함, 신성함—그 느낌 자체가 살아 있는 자에게 아주 큰 선물인 것 같이 느꼈습니다. 얼마 지난 후 취한 선생님이 내가 있는 곳에 오신 것처럼 아주 가까이 느껴져서 평안하게 가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취산 선생님이 심으신 아바타 씨앗은 일본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정합하며 세계의 정합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그의 의도는 많은 사람에게 자애와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시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제가 불안이나 갈등 안에 있으면 언제나 크게 웃으시면 “괜찮다!” 하시면서 영어, 한국어, 일본어가 섞인 ‘취산語’로 저에게 즐거운 기분을 주셨습니다. 조금 옛날 맛이 있는 우아한 일본말로 어린 소년 같이 꿈을 이야기 하시는 그 모습이 제 안에서 언제까지나 저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의 꿈은 제꿈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과도 같으며 더욱 더 크게 실현할 것을 확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언제나 아실 겁니다. 깊은 감사를 진심으로 올리면서 취산 선생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통합과 탐험(探險)을 즐기세요.